

Vol.
08

2016.8.31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Seohae-an Research Institute

01 이슈공감

CONTENTS

01 이슈공감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신

02 연구소 소식

03 주요 수행연구 소개

100여 년만의 폭염, 이상기후 이제 낯설지 않은 이야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신(sinslee@cni.re.kr)

2016년 8월, 전국은 108년, 112년만의 폭염 등 100년이란 단어와 함께 거의 매일 폭염피해에 대한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비단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 폭설, 장마 등 이제는 이상기후 앞에 100년이란 단어가 자주 함께하고 이에 익숙해지고 있는 듯하다.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남지역도 20년 만의 가장 많은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나타내며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처서가 지난 지금도 낮기온은 30도를 오르내리며 온열질환 환자 발생과 감염병이 증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행히 이른 아침에는 한 달 넘게 느껴보지 못한 시원한 바람에 긴 더위에 잊고 있었던 심호흡을 하며 기나긴 폭염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 보도자료(2016.8.19.)에 의하면 올해 충남지역 무더위는 평년보다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에 의한 기압계 정체와 중국으로 부터 가열된 공기의 한반도 상공유입과 더불어 맑은 날씨에 의한 강한 일사가 원인이라고 한다. 이유를 떠나 이제 이러한 폭염이 더 강하고, 더 자주 발생할 것을 전망하고 있어 올해 우

리의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장기적인 적응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2단계 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폭염에 의한 건강, 농업, 물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영향과 우수 적응정책들을 수집·분석하여 우리 도에 적용 가능한 적응대책을 제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기후변화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대부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현상은 평균 온도 상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폭염과 한파, 폭우, 폭설과 가뭄 등과 같이 상반되는 극한값 자체의 증가와 더불어 출현빈도가 늘어가는 문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점점 늘어가는 것 등을 포괄하여 의미한다. 이러한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점점 커져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적응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01

충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1차년도 시행 종료 시점을 맞이하여 도내 배출권 할당 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기후변화 업무 주관 부처 변경 등에 따른 여건변화 대응과 충남도내 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조기감축 추진방안과 상쇄제도 현황과 전망 등 향후 제도 운영 시 활용 가능한 방법론에 대한 정보공유도 함께 진행 하였습니다.

02

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도와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의 해양생태계 발전 방향성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워크숍을 계기로 충남지역 해양생태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복원과 자원 활성화 정책개발의 방향을 정립 하였습니다.

03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현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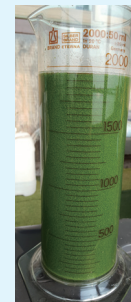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금강에 짙은 녹조가 발생하여 언론사, 환경단체 등과 공동으로 금강 녹조 발생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포함한 금강하구 일원 조사를 통해 녹조발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수립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제보 상류
(우안 어도)



백제보 하류
(백제교 부근)



황산대교
(논산천 합류 이후)



금강 하류
(연꽃재배단지)

04

도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실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7, 8월 2개월 동안 공주 경천중학교, 내포초등학교, 아산 삼성고등학교, 아산 인주중학교 등 4건의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인 기후변화 교육운영을 통해 도민 기후변화 인식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05

2016 한국환경교육
한마당 체험부스 운영

2016년 우리나라 환경교육 전국대회가 홍성일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연구소 홍보와 더불어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교육 운영방향에 대한 방문자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주요연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9개 시 · 군)	이 상 신
충청남도 연안환경 측정만 모니터링	윤 중 주
충남 기후변화적응 수종 유형화 및 생태정보 구축방안 연구	표 정 기
지방상수도 기존수원활용 및 신규개발 조사연구	김 영 일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김 홍 수
보령댐 급수지역의 가뭄 대응방안 개선연구	정 우 혁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적 가치평가 연구	신 우 석

• 연구소개 /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9개 시 · 군)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도내 9개 시 · 군, 이하 목표관리제)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기관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016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서 1단계 기간 동안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2단계부터 도비 지원을 신청한 도내 9개 시 · 군(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에 대해 연구소에서 목표관리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목표관리제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평균 14.2%의 기준배출량이 증가되었으며, 특정 시 · 군의 경우 감축실적이 20% 이상 실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반기 외부감축사업 신청 등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며, 2017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배출량 단위 : tCO₂eq, 감축율 단위 : %)

구분		A시	B시	C시	D시	E군	F군	G군	H군	I군
조정전	기 준 배출량	8,618	9,643	6,561	1,552	1,403	3,559	1,283	6,131	6,792
	감축율	25.6	8.3	20.1	9.9	13.9	-0.2	20.0	-2.2	7.7
조정후	기 준 배출량	진행중	23,461	9,702	12,941	3,761	5,392	진행중	8,082	진행중
	예 상 감축율	-	28.7	25.9	10.8	23.0	22.2	-	24.5	-